

1. 진화하는 경제/문화도시 빌바오

① 빌바오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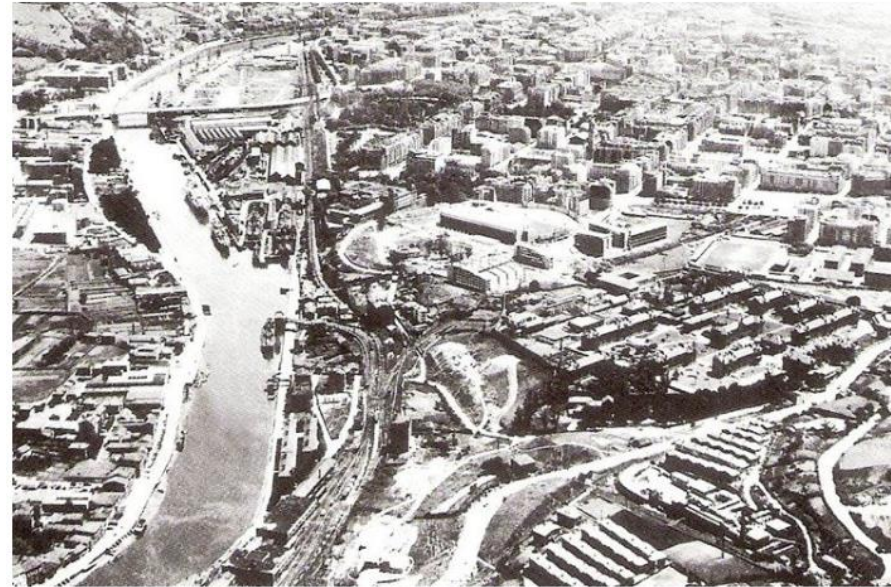
- 인구 : 100만명
(스페인의 5번째 큰 도시)
- 위치 : 스페인 북부
바스크 지방의 경제중심지
- 산업 : 제철, 에너지생산, 기계, 항공산업, 전자, 정보통신산업 등 발달
- 특징 : 2012년 기준 1인당 GDP 4.4만 달러
(스페인 평균 3.1만달러 보다 상회)



② 빌바오 역사

- 14세기 : 대서양연안으로 흘러드는 네르비온 강 연안에 입지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교역 중심지로 발전
- 17세기 : 메리노 울 수출로 스페인 북부의 가장 중요한 항구이자 경제/금융 중심지
- 18세기 : 신대륙 식민지 무역으로 크게 성장하고, 산업혁명 이후 철강, 제철, 조선산업을 근간으로하는 스페인 최대 중공업중심지로 성장
- 1920년대 : 철강자원의 고갈
- 1970년대 :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전통적인 공업도시로서의 지역경제기반 붕괴
- 1980년대 : 산업침체로 실업률 30%

[빌바오의 신화를 만들어 낸 네르비온 강]



1880년경 빌바오시 항구 전경(사진출처: History Today)



1950년대 빌바오 전경(출처: 위키피디아)

③ 1980년대 후반, 공업도시에서 문화/예술의 도시로

- 1989년 바스크정부에서 빌바오 대도시권의 재생을 위한 종합전략 구상 마련
-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계획 실행의 일환으로 8개의 핵심이슈 도출
 - 혁신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와 융합된 대학교육 마련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
 - 기존 전통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금융산업, 소프트웨어산업 등 고차서비스산업 육성
 - 글로벌 세계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공항, 항만, 초고속철도 등 인프라 정비와 연계정비를 통한 접근성과 연계성 강화
 -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, 환경친화적 기술의 활용,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와 협력 강화 등 환경재생의 지속적인 추진
 - 세계적인 대도시권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내부 인프라의 질적 정비,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부 정비, 주거수준 향상, 빌바오 대도시권 전체의 통합 강화 추진
 -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문화/전시공간 건립, 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, 공연, 축제, 음악회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 유치, 인력양성 및 문화예술정보 공급 등 문화 인프라 확충의 종합적 추진
 - 공공부문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고 효과적인 실행체계 구축
 - 도시발전의 궁극적 목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강화와 시민의 사회참여 촉진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 강화

④ 네르비온 강의 회복과 수변공간 개발

❖ 네르비온 강의 회복

- 산업폐수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네르비온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강의 건강성 회복하는데, 구겐하임 뮤지엄의 6배 비용 들여, 15년간 회복
- 수질 개선(현재는 물고기가 살지만, 목표는 식수로 이용할 만큼으로 개선시키는 것)

❖ 수변공간 개발

- 구겐하임 뮤지엄, 쌍둥이 주상복합, 셰라톤 빌바오 호텔, 국제회의장, 컨벤션, 복합 대형콘서트홀 건설
- 컨테이너 하치장으로 사용하던 곳은 약 20만제곱의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조성하여, 산책로, 자전거전용도로, 어린이놀이터로 사용
- 트램이 2002년 완공되어, 지금은 확장

❖ 1983년 대 홍수로 폐허가 된 구도심 재개발

- 구도심과 네르비온 강변의 신개발지를 연계한 트램 도입
- 도심과 주변을 연계하는 지하철도 건설

❖ 빌바오 지하철역과 공항터미널, 보행교

- 빌바오 성공을 계기로, 빌바오 지하철 역은 노먼 포스터가, 빌바오 공항 터미널은 칼라트라바가 설계



- ★ '산티아고 칼라트라바'가 설계한 작품
- ★ 하얀색의 모던한 디자인
- ★ 가까이 갈수록 자유곡 선의 유기적인 구조미와 케이블선들이 겹치며 절묘한 공간적 아름다움을 만듦
- ★ 교량의 바닥은 강화유리로 물을 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됨



❖ 문화예술도시 도약의 기폭제,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

- 버려진 항만과 철도부지를 활용하여, 복합문화 / 업무 / 예술 중심지구로 변모
- 1997년 프랭크게리 설계로 7년만에 완공
- 길이 130m, 폭 30m
- 네르비온 강에 정박한 선박같은 형상
- 재료는 비행기 외장으로 사용하는 티타늄으로, 흐린 날에는 은빛, 맑은 날은 금빛을 띄어 '메탈 플라워'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함
- 개관 첫해에 136만명 관광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
- 초기 투자비의 7배 넘는 수익, 4000여개의 일자리창출, 다른 미술관들의 관람객도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력 견인





⑤ 민관협력 거버넌스

- 빌바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
- 도시의 현실을 극복하기위해, 먼저 도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
- 스페인중앙정부와 바스크지역정부가 50% 씩 투자하여, '빌바오리아2000'을 1992년에 정부주도의 전문조직으로 결성하여,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
-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, '빌바오메트로폴리30'이라는 지역협력체 결성
- 도시 혁신프로젝트를 위해 130여개의 공공행정기관, 민간기관, 대학교, 공기업에서 800여명의 전문가가 지속적인 노력 중
- 공업도시에서 문화경제도시로 새로운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고, 지금은 고차서비스와 하이테크산업 유치를 통해, 기업활동에 매력적이고, 창조적인 도시로 새로운 목표 설정

2. 주민이 주도하여 만든 소박한 관광도시 유후인

① 유후인 개요

- 인구 : 1만명
- 위치 : 규슈지방 오이타현
농업 중심의 작은 산골마을
- 산업 : 관광
- 특징 : 해발 1584m의 유후다케가 온천수의 원천으로,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유치



② 유후인 역사

- 일본 농산어촌지역 중 하나로, 지역경제쇠퇴,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지방도시의 일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음
- 인접한 벳부와 같이,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온천수를 분출하고 있었지만, 불편한 교통으로 일본 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못함
- 일본인들의 관광행태가 남성단체에서 가족단위로 바뀌고, 고령화 현상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, 가장 인기있는 온천휴향지가 됨

③ 내발적 발전의 성공사례

- 지역주민이 함께 유후인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며, 고급 휴양 생태 문화 관광지라는 고품격 이미지를 갖추
 - 1952년 '댐건설에 대한 반대운동'으로 시작
 - 청년단체의 대표였던 '이와오 히데가스'가 1955년에서 1974년까지 5기를 연임하면서 유후인을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되는 조용하고 소박한 휴양온천지로 발전시킴
 - 이후, 다양한 정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

④ 주요 공간 및 건축물

- 유후인 역 : 오이타현 출신 아라타 이소자키가 외관도 독특하게 설계하였지만, 내부의 대합실은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가 가능하도록 아트 갤러리가 조성
- 긴린코 호수 : 호수 바닥으로 부터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함께 올라와, 아침에는 몽환적 분위기를 만듦
- 유후인역~긴린코 호수까지 약 30분 거리 : 작은 가게 음식점, 카페, 공방, 미술관 등
- 료칸 :



[유후인 역 : 오이타현 출신 아라타 이소자키 作]





[유후인 역 : 내부 대합실]



[유후인 역 : 내부 대합실]



[유후인 전경 출처 : 일본정부관광국]



[긴린코 호수]

일본의 한 유학자가 연못을 헤엄치는 물고기의 비늘이 석양에 비추어 황금빛을 이루는 것을 보고 긴린코 (황금 비늘 호수)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





⑤ 장소 마케팅을 위한 노력

- 벚부와 차별화를 위한 외부에 대한 지역홍보 프로그램
 - 대표행사 : 반딧불 채집행사, 소 한 마리 운동, 쇠고기 먹고 소리 지르기 대회, 유후인 영화제
 - 그외에 음악제, 음식문화제, 건강마라톤을 계절별로 운영
 - 일본의 유명 문화인들을 초대한 홍보를 통해, 미하자키하야오는 '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', '이웃집토토로' 를 유후인을 배경으로 하여 제작함



⑥ 대규모 개발 및 외부자본의 침투 저지

- 유후인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외부자본에 대한 찬/반 논의
 - 1970년대 유후인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, "유후인의 자연을 지키는 모임"을 결성하여, 골프장 건설에 대응
 - 그밖에 대형 건축물과 상업시설을 지으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, 항상 주민간에 민주적 토론과 과정을 거쳐 저지해 나감
 - 나아가, 골프장건설 반대모임이 모태가 되어, '내일의 유후인을 생각하는 모임'으로 발전
 - 유후인의 자연조건을 수동적으로 보존하는 일에서 벗어나 적극 활용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꾀하기위한 "자연환경보호조례", '모텔류 시설 등 건축규제 조례', '주택환경보전조례'등 제정으로 연계
 - 1980년대 일본 전역에 리조트개발 붐에 따라, 유후인에도 리조트개발 제안서가 약 3600개 신청되었으나, 오히려 "윤기있는 마을 만들기 조례"를 만들어 적절한 규제를 도입함

⑦ 유후시의 과제

- 2005년 행정구역 합병으로 인접한 하사마정, 쇼나이정과 합쳐져 유후시로 승격하고, 당초인구 1만 1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확대
- 주민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, 중앙정부가 행정의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되었으나, 지역문제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
 - 합병으로 기존의 유후인이 이뤄낸 브랜드에 무임승차하는 정들과의 지역간 갈등
 - 농업종사자와 관광업종사자간의 소득격차
 - 서로 달랐던 행정구역간의 심리적 통합 어려움

3.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도시

① 에든버러 개요

- 인구 : 약 50만명(호주에서 5위)
- 위치 : 유나이티드 킹덤(잉글랜드, 스코틀랜드, 북아일랜드, 웨일스) 중 스코틀랜드의 수도
- 산업 : 스코틀랜드의 정치, 경제, 문화의 중심지이며, 2000년 자치권 회복
- 특징 : “근대의 아테네”라는 별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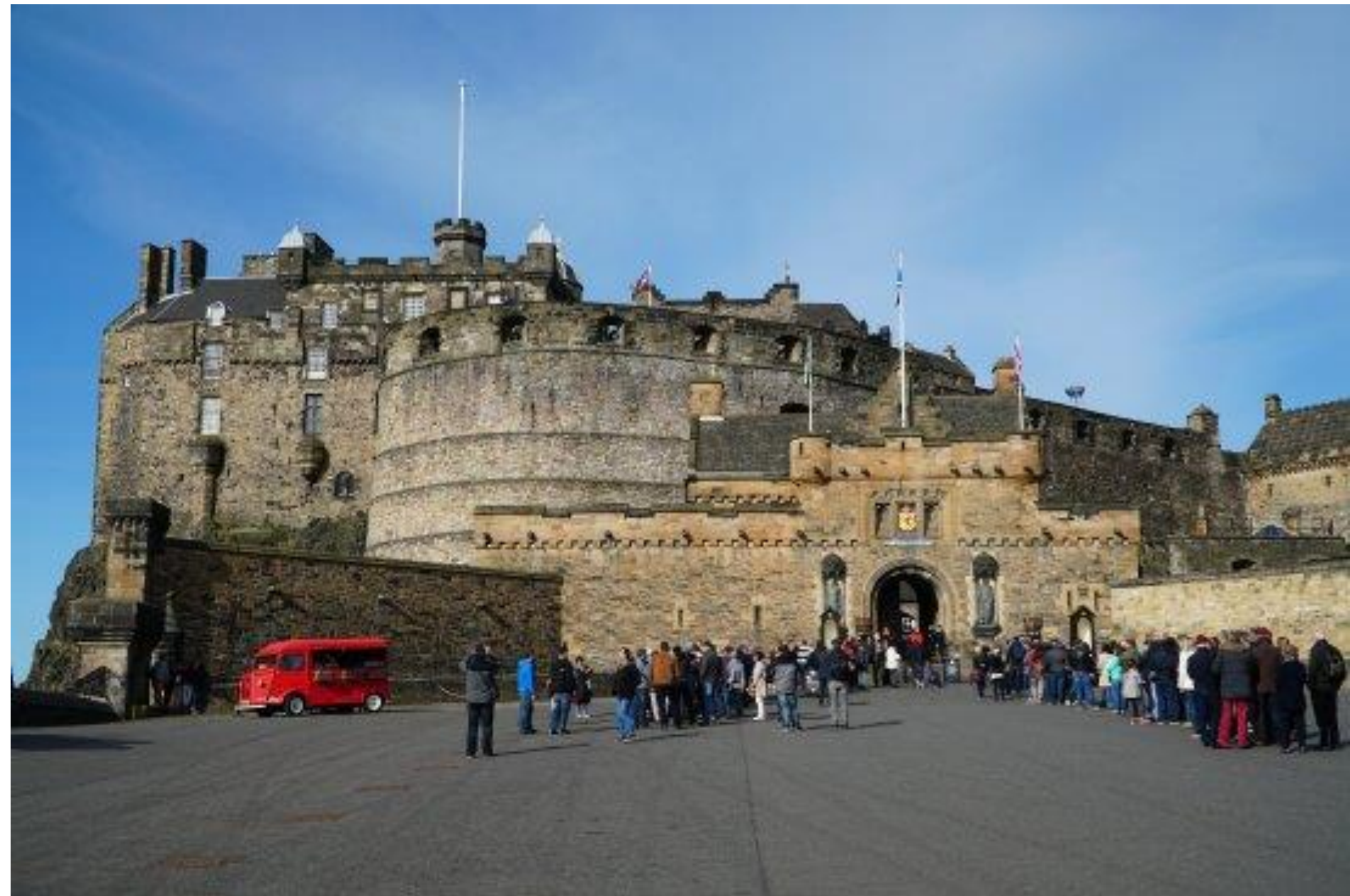
② 에든버러 페스티벌 “프린지”

- 7세기경 에드윈왕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에든버러성을 재건하면서 에든버러(brough)로 불리기 시작함
- 매년 늦여름 3주간(8월3째주)에 걸쳐 국제페스티벌이 열림
-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,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열린 페스티벌로 시작
-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극제

[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]



[에든버러 성]



[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]



<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80828500060>

[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]

<http://www.dtnews24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23408>

